

디모데전서5-6

Tape #C2616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First Timothy chapter five? Paul is a spiritual father to Timothy, Timothy's mentor. He looks upon him as a son; in fact, he calls him his son in the faith. Timothy has been left in Ephesus to oversee the church that Paul established there. While he is in Ephesus, Paul wrote to him this epistle. And in this epistle, he seeks to instruct Timothy in things of the church.

이제 디모데 전서 5장을 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언제나 아들을 대하듯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두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때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교회 의 일들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지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In a Bible doctrine class in seminary, you would have a subject known as Ecclesiology. And they use the epistles of Thessalonians and Timothy for their Ecclesiology classes. For as Paul said in verse fifteen, how that he has written these things in order that he might know how he ought to behave in the house of the Lord.

신학교에서 성경교리시강 배우는 과목 중에 교회론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과목을 공부할 때, 보통은 데살로니가서나 디모데전후서를 사용합니다. 15 절에서도 바울이 말한것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릴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쓴것입니다.

So as we get to chapter five, he deals first of all with Timothy's behavior towards the elders, men, the younger men, the elder women, and the younger women.

이제 5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사람들, 즉, 장로들이나 남자들, 또 젊은 남자들과 늙은 여인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Rebuke not an elder (5: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5:1),

Timothy was a younger man. He told him don't let any man despise thy youth. And here Paul is telling him not to rebuke an elder.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벌써 디모데에게 어느 누구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권합니다.

but entreat him as a father (5:1);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5:1);

Looking upon him as a father and talk to him as you would a father, entreat him as you would a father. Older people, I think, naturally resent being told by younger people what they ought to do or being rebuked by younger people. So Paul said, Don't rebuke them, entreat him as a father.

그들을 대할 때 아버지께 하듯 하고, 말할 때도 그리하며, 뭔가를 부탁할 때도 아버지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젊은 사람들이 할일을 말하거나 젊은 사람들로 부터 책망받는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께 하듯하라고 합니다.

and the younger men as brothers (5:1);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5:1);

There is a right way and a wrong way of calling a person's attention to a failure in their walk. The wrong way engenders strife, resentment. The way I present it to a person can create an animosity. Be careful that we don't build walls and barriers by the way in which we seek to correct someone. In dealing with the younger men, Paul said entreat them like a brother; treat the older men like fathers.

어긋난 길로 행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데 옳은 방법과 틀린 방법이 있습니다. 틀린 방법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개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적개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방법이 잘못되어 장벽을 쌓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젊은 사람을 다룰때에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이들에게는 아버지께 하듯 하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The elder women as mothers; and the younger as sisters, with all purity (5:2).

늙은 여자를 어머니께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5:2).

Timothy was evidently unmarried. Paul tells him in another place to flee youthful lusts. Treat the younger women like sisters. And then, 젊은 여성들을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디모데가 아직 미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부탁하기를, 3절에

Honor widows that are widows indeed (5:3).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5:3).

And now Paul seeks to define for Timothy who the true widows are.

이제 바울은 참된 과부에 대한 바른 정의를 제시합니다.

If any widow have children or grandchildren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5:4)

The word “nephew” should be translated “grandchildren,”

여기서 조카는 손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역주: 영어 흠정역). 계속해서 4절.

let them learn first to show piety at home, and to requite
their parents: for that is good and acceptable before God (5:4).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4).

So the first responsibility and Paul will repeat this again, for the welfare
and the care of the widows lies upon the children and the grandchildren. Now the
church did take upon itself the responsibility of caring for the needy within the
body. It was a part of the ministry of the church.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적인 책임이며 이 책임이 자손들과 손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 보는 책임을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You remember in Acts chapter six, where the Grecians came to the
apostles and they complained that their widows were not being dealt with as
bountifully as were the Hellenists, as were the Hebrews at the administration of
the church’s welfare program. And so there was a taking care of the widows by
the church. But Paul seeks to define who are really qualified to come under the
care of the church. If a widow had children or grandchildren, then it was their
primary and first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eir needs.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면, 그리스계통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자기네 과부들이 본토 유대인 과부들 같이 풍성하게 배급 받지 못한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때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행정을 유대인들이 행정을 맡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돌보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을 경우엔, 그들이야말로 자기의
어머니/할머니를 돌보는것이 자녀들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었습니다. 5절 말씀.

Now she that is a widow indeed, and desolate who’s trusting
in God, and is continuing in supplications and prayers night and day (5: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5:5),

Now these are the ones that the church is to take care of. One who is a “widow indeed, and desolate,” And that is really the qualification for those widows that were to be taken care of by the church. They really were given a ministry within the church, and the ministry within the church was the ministry of intercessory prayer. And so they “trusted in God, and were continuing in supplications and prayers night and day” for the church and the work of the church.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과부이며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의 갖춰야 할 참된 자격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는데 그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How grateful we are for those prayers of the older women within the church. I really feel a tremendous loss here at Calvary with the death of many of these older women who held the church up in prayer continually. We had a blessed group of older women, many of them widows, who have now gone to be with the Lord, but who had this special ministry of prayer and supplication night and day.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노부인들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기도모임을 가졌던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여기 갈보리 채플에게 정말 대단한 손실이라고 느낍니다. 우리에게 노부인들의 축복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이며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또 남은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를 주야로 하는 이 특별한 사역을 계속합니다.

Paul said in contrast to those,

6절에는 정반대로 비교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Those that are living in pleasure are dead while they still live (5: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5:6)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reprehensible things going is a dirty old woman. Now, I think that dirty old men are bad, too. But you know, there's something about an older lady that there should have developed that softness and that beauty. And you see some beautiful older lady who is a grandmotherly type and then you hear her talk and she's using profanity and all, and there's just something that doesn't set right. It's just not there. You know, I think that you usually think of the older women as mothers and, the way that some of them talk or act, it's just really reprehensible. And one of the saddest things is to see in Las Vegas these old ladies standing there at these one-armed bandits just working those things all day long, with a cigarette hanging out of their mouth, you know. I mean, that just isn't in my

mind the picture of what old ladies ought to be doing.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책망 받을만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나이든 여자가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든 남자도 말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성숙하게 가꾼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때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을 갖춘 노부인을 만날 때도 있는데, 어찌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불경스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격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엔 뭔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나이든 여성을 생각할 때는 보통 어머니를 연상하게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비난 받을 것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중의 한가지는 라스베가스에서 이 노인네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도박기 (Slot Machine) 앞에 서서 하루 종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There is a beauty that comes to that older woman who has been walking with the Lord. There's almost sacredness. I love to just sit down and share with those who have been walking with the Lord through the years. And from their mouth there pours the richness of God's love and God's goodness through the years. Widows indeed.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이든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의 신성한 아름다움이지요. 나는 지난 여러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온 그 분들과 함께 앉아 삶을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과 그 선하심에 관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과부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But those that are living for pleasure, those poor gals in Vegas, they're dead, Paul said, while they're still alive. I mean, they may still be breathing but man, they're dead and so is anybody who lives for pleasure, spiritually dead though they still may be alive.

그러나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라스 베가스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비록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호홉하며 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And these things [Paul said] give in charge, that they may be blameless. For if any provide not for his own, especially those of his own house,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infidel (5:7-8).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5:7-8).

That is, if they do not take care of the members of their own family, if they do not take care of the needs of those of their own family, really they have

denied the faith. Honor thy father and mother, the Scriptures said. And you've denied the faith if you refuse to take care of your elderly parents and grandparents.

이 말씀 그대로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필요한 것도 도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나 조부모를 돌아보는 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9절.

Let not a widow be taken into the number under sixty years of age, having been the wife of one man (5: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5:9),

Now this special ministry for widows, it seemed to be a ministry that was set aside in the church, and it was something that was an honored position. It was more or less a lifetime commitment by the older women to really give themselves to the burden of prayer and the prayer ministry for the church, and there was almost an office for the widows of the ministry of prayer. They were supported by the church. They were put on the church's payroll and their duty was just to continue night and day in prayer and supplication for the church. And I'll tell you, the church would be wise to hire the widows to do that, be profited by that kind of a ministry. A lot more than probably some of these young men that we put on staff who don't know quite yet what they're doing. If we had some widows that we put on staff just to pray for the church, a valuable asset profited. Any of you widows looking for a job?

교회 안에서 미망인들을 위한 특별사역은 짓혀 놓은것 같이보였습니다. 그리고 따로 구별되고 존경 받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이든 여성들 자신들이 거의 평생을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 사역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역이었으므로 그들의 기도 사역을 위한 처소까지 마련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밤낮 계속하는것이 그들의 의무 였으며 그들은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그들을 고용한 것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사역을 맡게 됨으로 인해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사역이 이 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사역으로 미망인들을 일군으로 고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가치있는 자산이 될것입니다. 이 중에 이런 직업을 찾는 미망인들이 계십니까?

So let the widow not be taken into the number; that is, the special ministry group who are cared for by the church, who are under sixty years of age, having been the wife of one husband who are,

이것이 교회에서 돌보는 모임인 만큼 미망인들의 명부에 올린 사람은 60세가 넘어야 하며 한 남편의 아내 이었던 자라야 합니다.

Well reported for their good works (5: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5:10)

These are the qualifications. They've got to have a good report that they have been doing good works.

그들이 살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는것이 그들의 선발자격 조건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합니다.)

if she has brought up children, if she has lodged strangers, if she has washed the saints' feet, if she has relieved the afflicted, if she has diligently followed every good work (5:10).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5:10).

Great qualifications. Then there was the special area of ministry for them. But Paul said the younger widows, don't take them into this special company.

정말 적합한 자격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의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젊은 과부들은 이 특정한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Refuse them: for when they have begun to wax wanton against Christ, they will marry; Having [not damnation, but condemnation], because they have cast off their first faith (5:11-12).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5:11-12).

So Paul says that the younger widows should marry. If they are brought into this special company in ministry within the church, and then should leave that, fall in love and so forth, having made that commitment to Christ, having put the hand to the plough; turning back, they would feel condemned. Not good. It is better that they just go ahead and marry and bear children and all and not be brought into this special company of ministering widows within the church. For if the church is taking care of them, 바울이 주장하는 바, 젊은 과부들은 재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특별한 사역에 위탁했을 때,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더 온전히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정진하기 위해 그 관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 비난을 받는 것처럼 느끼곤 했지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시 그 사역에 돌아오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They're apt to be just going around from house to house becoming idle, and tattlers and busybodies, speaking about things that they should not be speaking.

So better that they marry, have the responsibility of bearing their children, guiding their houses, and then gives no occasion for the enemy to speak reproachfully. For [he said] some are already turned aside after Satan. Now if any man or woman that believes has widows, let them take care of them, and not the church be charged; that they may take care of them that are widows indeed. Let the elders that rule well be counted worthy of double honour, especially they who labour in word and doctrine (5:13-17).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망령된 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훼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Now this indicates that there were other ministries for the older men besides just teaching the word and teaching doctrine, but these older men, these older saints ac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Again, even as the older women are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church, so those older men who have walked with the Lord for years can be a tremendous blessing to the church. How I thank God for the ministry of the older men in this church. The blessing that they are, the ministry that they have and they should be accounted worthy of double honor. 이 부분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당시에 나이든 남자들을 위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든 남자들은 배나 더 경건하고 덕망 있는 자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든 노부인들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같이, 나이든 남자 어른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교회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 그 자체였으며 그들의 배나 존경 받는 삶은 그 자체가 사역이 되었습니다.

For the scripture says, You are not to muzzle the ox that treads out the corn. And, The labourer is worthy of his hire (5: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군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So the double honor to the older men. 말씀을 가르치는 나이든 남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Then, 그리고

And against an elder receive not an accusation, unless there be at least two or three witnesses (5:19).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Don't take one person's word for it; let there be two or three witnesses.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Them that sin rebuke before all, that others may also fear (5: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Now I'm afraid that if the church practiced this open public rebuke of the sinners, it would create, no doubt, a fear but it might also create an empty church. You remember when the woman was brought to Jesus, taken in the act of adultery and they said, Our law says stone her, what do you say? And Jesus said, Let him who is without sin cast the first stone. And He began to write on the ground; it doesn't tell us what, but I feel certain that He was writing the names of the individuals and the sins they were guilty of. And it says they began to leave from the eldest to the youngest until there was none left. And if there was an open rebuke for sin, and we started going down naming everybody and naming the sins, it would create fear, I'm sure, within the church. 만일 교회가 범죄한 이들에 대해 공중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교회를 금새 텅텅 비게 만들 것입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녀를 끌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야 하는데 당신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주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 각자의 이름을 나열하시며 또 그들의 숨겨둔 죄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늙은 이부터 젊은 이까지 모두 떠나기 시작해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그곳에서 공중재판이 열렸다면, 그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 죄상들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그들로 두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얘기겠지요.

When I was a young man there was a man that I admired very much. I admired his ministry, Dr. Claire Britain. He was a medical doctor as well as a minister. And at a summer camp, I listened to him one year and he was saying that he could look into a young person's eyes, and the eyes are so revealing. They tell everything that the young person is guilty of; it's all there in their eyes. Man, I was afraid to look at him. Didn't want him to see everything that was there.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클레어 브리튼 박사라는 분입니다. 나는 정말 그의 사역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의사이며 동시에 사역자였습니다. 한번은 여름 캠프 때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그는 젊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들의 눈을 통해 어떤 죄책감이나 또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때, 혹시 그가 나와 눈이 마주쳐서 내 모든 것을 알아 버릴까 봐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Now I charge thee [Paul said]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elect angels, that you observe these things without preferring one before another, do nothing by partiality (5: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

We are all of us children of God. And as such, each of you are equally important to God. There are no second-class heavenly citizens. To you, I mean, to Jesus you are as important as anybody else, and it is the church's business to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and to show love, appreciation, honor, respect, and all, to everyone without partiality. We're not to say, Hey, he's got big bucks, you know, treat him good, and the church is guilty of sin before God. Paul is pretty straight with it. "I charge you before God and before Jesus Christ and before the elect angels." I mean, it's a heavy-duty charge. Don't show partiality, treat everyone alike.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입니다. 천국시민에게는 두 번째라는 계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누구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특별한 것이 없이 존경과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좇는 교회의 당연한 일입니다. 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더 잘 우대해야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책망 받을 일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강한 책임입니다. 사람에 대해 절대로 차별을 보이거나 편견을 보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How opposite that is from the natural tendency, if someone is a professional person; Oh, he's a doctor. Oh, he's a chief of police. Oh, he's a lawyer, or something, and oh, he's very wealthy, you know. And there is that tendency to, oh, you know, show little favors and oh, why don't you come sit at our table, you know. 허긴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와,, 그는 의사야,, 아,, 이 사람은 경찰 국장이래, 이 사람은 변호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부자고,, 그럼 당장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호의를 보이며 보통 이렇게 반응하지요,, 아,, 선생님 여기 좀 앉으시지요..

James also wrote saying have no respect of persons. "God is no respecter of persons" (Romans 2:11). And we're not to have respect of persons. James says, Hey, someone comes in, you know, and they're well-dressed and you know, wearing diamonds and all, he says, you say, Hey, come on down, take this nice seat down here. Some guy comes in rags, you say, Hey, sit in the corner, man. And he said that's wrong. You see, in the eyes of the Lord we are all the same. God doesn't look upon me with any greater favor or honor or anything than He looks upon you. It is a tragic thing that the church has set up certain men that we say, Oh well, you know, look how close he is to God. We are equally close to God. We are equally in God's favor. God is no respecter of man's person. And we are not to be, either. So doing nothing by partiality.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로마서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저기 옷을 잘 차려 있는 사람이 오는구나,, 다이아몬드며 온갖 보석을 다 걸쳤구나,, 아,, 선생님 여기 편안한 곳으로 앉으시지요.' 그런데,, 저기 또 한 사람이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오네, 에이, 저 사람은 저 구석에 앉혀라,.. '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런 병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 야,,저것 봐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민감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똑같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똑같이 사랑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마십시오.

Now lay hands suddenly on no man (5: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What does that mean? Don't come up and say, hey, you know, lay hands on me suddenly and shock. No, he's talking now in the laying on of hands for the ordaining of a person for a ministry within the body of Christ. Let a person sort of prove themselves, don't be quick to ordain people to a particular task. Oh, glad to see you here this morning. Here, take this Sunday school book; we need a teacher for our sixth grade class, you know. A lot of churches feel that you got to lock the person into a job, you know, get them involved, you know, and hold them. But Paul said, "Don't lay hands on." You know, it's a lot easier to get people in than it is to get them out. And a tragic thing has taken --has happened in the church, and without really learning the individual, ordaining them for particular tasks or particular job, and then you can rule that quickness of judgment for a long time. So don't lay hands on any man suddenly.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안수하거나 해서 너무 깜짝 놀라게 만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몸의 사역을 위해 아무 사람이나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임명할 때는 스스로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깊은 생각 없이 특정한 임무를 맡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을 만나니 참 반갑군요. 여기 주일학교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6학년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많은 교회들이 생각하길 '자꾸 참여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야지.. 개인이 직임을 맡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나,,' 하며 반발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내 모는 것보다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극이 현재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훈련이 없이 특정한 일을 맡기고 직임을 맡기는 등,, 장기적인 일을 순식간의 판단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and neither be a partaker of other men's sins: keep yourself pure (5:22).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Hey, that's not just good exhortation for Timothy; that's good for all of us. Keep ourselves pure. Now this is for Timothy. 이 말은 오직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군요. 23절.

Drink no longer water, but use a little wine for thy stomach's sake and thine oft infirmities (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5:23).

Most of the people in that culture and in that day did drink wine. The wine that they drank was a mixture of water and wine, three parts of water, two parts of wine. And it was as common, as water as far as a drink was concerned, because in many of the areas the water was polluted. It would be like someone going down to Mexico and writing back and saying, Oh, man, I've got, you know, Montezuma's revenge, you know. And you know, so you would write to them and say, Hey, you better drink cokes or something, you know, instead of that water. You know, drink a little wine for your stomach's sake, for this dysentery and so forth. And that's basically what Paul is suggesting to Timothy.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물 3컵과 포도주 2 컵의 비율로 혼합한 것입니다. 당시의 많은 지역의 물들이 오염이 되어 있었으므로 물 대신 이렇게 마시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멕시코에 내려가서 편지로 하소연하기를 내가 멕시코 설사에 걸렸는데 어쩌면 좋겠는가.. 하고 물으면 누구라도 대답하기를 '물 대신에 콜라를 마셔보지 그래...' 할 것입니다. 위장이 좋지 않을 때나 이질로 설사가 날 때, 혹은 속이 불편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테에게 아주 상식적인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Now this is to me quite interesting, however. In that I have no doubt that of those men in the New Testament who had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n operation in their life, the gift of miracles, healings and all, certainly Paul ranks with the chiefest of the apostles in the ministry gifts of the Spirit. Paul had many miracles wrought through his ministry. Paul had, I'm sure, the gift of faith, the gift of working of miracles, gifts of healing working through his life. And yet here is his son in the faith, Timothy.

여하간 이것이 내겐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는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적과 치유의 은사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성령의 은사의 사역에서는 사도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는 사도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기는 사도 바울도 그의 생활을 통해 믿음의 은사와 이적을 베푸는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Now when Paul was in Ephesus, they took his aprons and his sweatbands and they laid them on the sick people and they were healed. Why didn't Paul just anoint the handkerchief and send it to Timothy and say, Sleep on this? Now I am certain that Paul had prayed for Timothy's stomach disorders. And there are indications that Timothy was a very feeble person and was a sickly person, yet a companion of Paul. The question, why didn't God heal Timothy? Why was he allowed to be sickly? Why would Paul write sort of a medical, physical prescription for his ailment rather than just pray for his healing? I am convinced that Paul did pray for Timothy's healing. But nonetheless, Timothy wasn't healed.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없으면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손수건에 안수하여 디모데한테 보내며 그 위에서 누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바울이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 기도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 말씀은 바울과 동역하기 전의, 디모데는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었으며 병을 잘 앓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질문은 그럼 하나님이 왜 디모데를 고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왜 그가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바울은 그가 낫도록 기도하는 대신 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신체적인 처방을 썼을까요? 바울은 정말 디모데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낫지 않았습니다.

I believe the reason why is that we would not be caught up in that kind of heresy that we'd say, Well, brother, you're still sick because there's some sin in your life. Or you're still sick because you just don't have enough faith. Or you're sick because you have this personal problem or something of that nature. To keep us from that kind of foolish, unscriptural speculation, we have the case of Timothy, a close associate, companion, son of Paul in the faith who Paul is giving some just, pure advice to, from a physical level for his oft sicknesses rather than having a divine touch of God and a healing upon his body.

내가 믿기엔 그 이유는 우리가 “ 형제여, 당신이 이렇게 낫지 않고 계속 아픈 이유는 당신 삶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도 아픈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당신이 아직 아픈것은 당신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그런 성질의 일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단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어리석고 비 성경적인 추측을 하지 않도록 막기위하여 우리는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였고 바울의 미움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몸을 하나님이 어루 만지심으로 고치는것 보다 그의 자주 앓는 병에 대한 그의 체질의 수준에서 부터 바르고 순수한 충고를해주고 있습니다.

God does not heal in every case. And in those cases where God doesn't heal, God has a purpose for not healing. It is not the lack of faith. It is not something wrong in the life of the individual. There is something within those eternal purposes of God that we cannot, do not, and will not understand. And I am thoroughly opposed to that kind of teaching that if you will follow this formula, you will be healed, and then that person who has this chronic illness feels constantly guilt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something wrong with my relationship with God. Why aren't I healed you know, what's wrong with me? And actually you are kicking a person when they are down if you lay some kind of heavy trip on them that way. Oh, brother, you know, there's just got to be something wrong, you know. If you just had enough faith it would happen to you, too.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막론하고 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병을 치유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병을 고치시지 않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결여된 것도 아니요, 또 개인적인 삶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미래에도 이해할수 없는것이 있습

니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당신이 이 방식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당신은 분명히 치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뭔가 잘못되었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것이 분명해. 나는 왜 치유가 안되는 거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그리고는 당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른 사람이 아파 누웠을때 당신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무거운 부담을 주어 그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오 형제여, 당신도 알다시피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강해진다면 이 병이 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서 말입니다.

There's an interesting scripture concerning Jesus that we do not understand in our modern culture today. It said concerning Jesus, “A bruised reed he would not break” (Isaiah 42:3). To put that into a modern vernacular would be; He would not kick a man who is down. That's what meant by “a bruised reed he would not break.” He wouldn't kick a man when he's down.

오늘날의 현대 문명에서 사는 우리들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에 관한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사 42:3).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어 말하면, “ 그는 그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발길로 차지 않는다” 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는 뜻입니다. 그는 넘어진 사람을 발길로 차지 않으십니다.

Paul himself had an affliction, which he prayed three times that God would deliver him from it. God finally answered, but not by delivering him but by just giving him the grace to endure it, declaring,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strength will be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2 Corinthians 12:9). So let us not be guilty of judging wrongly. Or of laying some heavy burden upon someone who is already burdened because of their illnesses, because of their weaknesses. Let us just recognize that God doesn't heal in every case. Now God does heal in some cases, He doesn't heal in other cases. Why He heals some and does not heal others is totally bound up in the sovereignty of God. As the Holy Spirit divides to each man severally as He wills of the gifts of the Spirit.

바울 자신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옮겨 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에게서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신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낼수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그러니 우리도 잘못 판단하는것이나, 그들의 질병으로 인해 이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우는것이나, 또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의 질병을 다 고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엔 치료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치유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치유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하지 않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은사에 관하여도 그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So Paul is encouraging Timothy for the stomach problem just drink a little wine. Don't drink that water anymore, dangerous stuff. I understand when they come to the United States from Mexico they always warn them, now don't drink the water.

It's because we have different amoebas here than they do down there, and they get the same kind of problems from our water that we get from theirs. It's just that they become immuned to those amoebas in their water as we have become immuned to the amoebas. Hey, we don't have the purest water in the world, believe me.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위장병을 위해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 물은 오염되어서 위험하니, 그만 마셔라. 나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미국 물은 절대 마시지 말라고 경고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물은 그들이 살던 곳과 다른 성분의 아메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들의 물을 마셨을 때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 물의 아메바에 면역성이 생겼듯이 그들도 그들의 물의 아메바에 면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한 물은 없습니다.

Now he said,

24절 25절 말씀입니다.

Some men's sins are open beforehand, going before to judgment; and some men they follow after. Likewise also the good works of some are manifest beforehand; and they that are otherwise cannot be hid (5:24-25).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5:24-25).

In other words, before you meet the person, often you hear about them and their sins have gone before them. People have told you, Oh hey, he's done this and he's done that and all. Before he ever comes and you meet him or he confesses whatever, you've already heard of what he has done. That happens so many times. A person comes to confess something and and you've already heard it from two or three persons. And the same thing with a person's good works, they also go before them. Or people have shared with you, Oh, he's really, you know, outstanding and this, that or the other, and you hear of them before you meet them. Their works precede them. They're manifest beforehand, cannot be hid.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해 어떤 말을 자주 듣게 되면 그들의 죄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앞서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또 저런 일도 저질렀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줌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또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직접 고백을 듣기도 전에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고백하는 데, 당신은 이 얘기를 벌써 서너 번 들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 좋은 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장본인보다 먼저 정보를 주며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더라구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능력이 많아요”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알아 버리죠. 그들의 선행이 앞서 가고 감추어 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게 되지요.

Chapter 6

Now Paul turns to the subject of servants in chapter six.

이제 바울은 종들에 대한 주제로 제 6장을 시작합니다.

Let as many servants as are under the yoke (6:1)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6:1)

That is, to a master.

이것은 주인에게 행할 목록입니다.

count their own masters worthy of all honour (6:1),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찌니 (6:1),

Now this is actually the word “slave.” And in that day, slavery was a very common practice. And Paul said, If you are a slave, then count your master worthy of all honor or respect.

이것은 실제로 “노예” 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는 아주 공공연하게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만일 네가 노예라면 너의 주인을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that the name of God and his doctrine be not blasphemed (6:1).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1).

In our day and age, it is so important for us as Christians to be above reproach in our work and in our work habits, because people are expecting more from you as a Christian than they expect from a normal person. It may be that everyone is fudging on his breaktime and is, you know, taking a half-hour for break when fifteen minutes is allowed. If you're a Christian, you should take fifteen minutes, though the others are taking a half-hour. Now if the other is so, you're taking a half-hour and the others are taking fifteen minutes, you say, well, you know, I'm a Christian; they'll say, Hey, supposed to be a Christian, look at that. And many times by our actions and by our attitudes, we cause the name of Jesus to be blasphemed. And that's tragic.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일하는 습성에 있어 나무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인인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5분으로 정해져 있는 휴식시간에 30분을 쉬며 눈 속임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인이라면 다른 이들이 30분을 쉴 동안에 여러분은 정확히 휴식 시간을 15분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날 정확히 15분의 휴식시간을 지키는데 우리가 30분을 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한다면, ‘여봐, 그리스도인 다워야지, 저것 좀봐’ 라고 말할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극이지요.

That was the thing that Nathan nailed David with, after David’s experience with Bathsheba. He had said to David, “David, you’ve caused the enemies of God to blaspheme” (2 Samuel 12:14). You’ve given occasion to the enemies of God to lay blame against Christianity or against Jesus Christ because of your slovenliness. More is expected of you because you are a Christian. Produce more, Paul is saying.

다윗이 밋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다윗 왕이여, 여호와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이다” (삼하 12:14)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여금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기회를 주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할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여 생산성을 높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If you have a master who is a believer, then don’t despise them, because that they are your brothers; but rather service to them, because they are faithful and beloved, partakers of the same benefit. These things [Paul said] teach and exhort (6:2).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6:2).

So basically the servant was as a Christian, to be exemplary in his service, whether he had an unbelieving or a believing master. **Now if you had a believing master, he may sort of resent the fact that he still is requiring this of me.** After all, we’re brothers in Christ and we are believers, you know. But Paul is just exhorting them to have the respect and honor of their masters. **?????????**

그리스도인인 종은 기본적으로 자기 상전이 믿는 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합니다. 만일 어떤 종이 믿는 상전을 모시고 있다면, 그는 아마 그 주인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상전을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If any man teach otherwise, and does not consent to wholesome words, even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doctrine which is according to godliness (6: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6:3);

Paul uses this word “godliness” some six times; I believe it is in this epistle. He talks a lot about godliness.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you remember last Sunday’s message.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I Timothy 3:16), and all. Now again, “If someone teaches otherwise, and does not consent to the wholesome words, even the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o the doctrine which is according to godliness.” And that’s the purpose that we might be like God, that we might be godly in our actions.

바울은 이 서신에서 ‘경건’ 이란 단어를 무려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에 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딤후3:16), 다시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것과 우리의 행실이 경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That person who is teaching otherwise,

가르치는 자에 대해 그 밖의 다른점은 (4, 5절 말씀)

Is proud, he knows nothing, but doting about questions and strifes of words, whereof comes envy, strife, railings, and evil surmisings, the perverse disputings of men of corrupt minds, and destitute of the truth (6:4-5),

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6:4-5),

And what is their main thesis?

무엇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까요?

supposing that godliness is a way to gain withdraw yourself from such a person (6:5):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5):

Paul said this is one of the worst heresies.

바울은 이것이 가장 나쁜 이단들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You see, here is a slave who is saying, Hey, I've a godly master so you know he ought to make it easier on me. It's a way for me to gain. Here is a master who's saying, Oh, I have a godly servant, you know, I can trust him and I can put him in a position of trust because he is godly. I can use that for my gain, for my benefit.

여기 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말하기를 “ 우리 주인은 아주 독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일들을 좀 가볍게 해야지. 그게 나를 돕는 거지.” 그런데 그 주인이 또 말합니다. “ 내 노예는 아주 독실한 사람이야. 그는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 하니까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거야. 나는 그것을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거야.”

So many people are following this heresy.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advocating this heresy. You know, if you want to be rich, if you want to drive a Cadillac, just receive the Lord and have enough faith. Go out in faith, put the down payment on the thing, put a deposit on it, you know. Believe and trust the Lord to make the payments. Godliness is a way for prosperity. God wants you to have the best. You're the King's kids and God wants you to live like the King's kid. Go out and go for it. Indulge your lust. God wants you to have everything. Godliness is a way to gain.

많은 이들이 이런 이단적인 사고를 따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일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또는 만일 여러분이 고급차를 타고 싶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보증금을 내고, 믿음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월부금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경건이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일 좋은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이니 당연히 왕의 자녀답게 사는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은 얻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Perverse disputings of men of corrupt minds. They're destitute of the truth, from such withdraw yourself.” The truth is,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가 없어 비뚤어진 언쟁을 하는자들을 떠나라.” 참 진리는..

godliness with contentment that's great gain (6: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6:6).

That's really being rich. The person who never has enough, who is always wanting more, is not really rich. I know a man who has over a hundred and fifty

million dollars, over a hundred million deposited in certificates of deposit in the bank. He keeps that for the acquisition of new breweries that might come on the market. This man works sixteen hours a day, sixteen to eighteen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never takes a day off, never takes a vacation; drives himself. He's not rich, he's poor, that's not really being rich. What is really rich? The man who is godly and is content, a man who doesn't have a need. That's the man who is rich; he's got everything he wants. That's real riches, that contentment with what I have.

그것이 참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진것이 부족하여 항상 조금만 더 원하는 사람은 부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남자는 은행에 1억 5,000만불이 예금되어 있고 증권에 1억을 넣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양조장이 시장에 나오면 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16-18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합니다. 결근도 없고 휴가도 없이 운전도 손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것이 부요한 것입니까? 경건하고 자족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것을 모두 가진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것으로 만족하는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And so Paul speaks about contentment. He said,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에 대해 말하기를, (7절 말씀입니다.)

We brought nothing into this world, and it is certain we're not going to carry anything out (6: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6:7).

When you die, you're going to do just exactly what everyone before you has done; you're going to leave everything here. You're not going to take a cent with you. "Naked I came into the world, naked I'm going out of the world" (Job 1:21). I brought nothing in; I'm going to carry nothing out.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때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진 분들이 행했던 것과 똑 같이 하실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남겨 놓고 가실것입니다. 단돈 일전도 가지고 가지지 않을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 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욥 1:21).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것입니다.

And [therefore] having food and raiment let us be therewith content (6: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8).

How many people have brought themselves into really great poverty because they're never satisfied with what they have? Always wanting something more. And that discontentment has brought many people to bankruptcy. "Having food or

raiment be content.” You have food, you have clothes, praise the Lord! Be content.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들 자신을 큰 가난에 몰아넣는지요?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좀 더 가지기 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먹을것과 입을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먹을것이 있고 옷이 있거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족 하십시오.

9절 말씀.

But they that will be rich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6:9)

If this is your goal, if this is your drive, if this is your purpose in life, “they that will be rich” will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면,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부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fall into temptations and a snare, and into many foolish and hurtful lusts or desires, which drown men in destruction and perdition (6:9).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6:9).

The wealthy person has far many more temptations than I have. Because of his wealth, the opportunities are there of doing so many more things. I don't have to worry about a lot of things because I don't have the money to do them; I'm not tempted by them, I can't afford them. But a wealthy person runs into all kinds of temptations that you never dreamed about. So “they that will be rich will fall into these snares, the temptations, many foolish, hurtful desires, which just drown men in destruction.”

부자들은 엄청난 재산이 있어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기회를 갖지만 실상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것들을 할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니 유혹을 받지도 않지요. 하지만 부자들은 우리가 꿈도 꾸어보지 못한 유혹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분명히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것이라” 했습니다.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6:10):

That's quite a statement. Notice, he does not say,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And you've often heard it quoted that way, haven't you? That's not what he

says. Money is not evil; it's not good. It all depends on your attitude towards money. And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보십시오. 그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가 말하길 그냥 단순히 "돈은 모든 악의 뿌리"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명백하게 말하자면, 바울이 말한 것은 돈이 악이다 라거나 혹은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입니다."

James said "from whence comes the fightings and the wars" (James 4:1). Does it come from man's own lust, the desires? Love of money, the greed, behind all of the wars and strivings and jealousies and all within the world, the love of money, the root of all evil. And so you can take the evil and you can trace it all back and it comes back to greed, the love of money. And the world is in the mess that it is today because of greed.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약 4:1) 고 말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욕망을 좇아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온 세상의 여기 저기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시기심의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어디서 왔는지 잘 추적해 보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오늘날의 이 상태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It is not that we are running out of natural resources. It isn't that the world isn't big enough to accommodate the population. It isn't that we could not feed everybody. The problem with the world is how men are spending the money. Last year throughout the world, there was over one trillion dollars spent for the defense budgets in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buying war equipment to destroy other men; over one trillion dollars. Had we spent one trillion dollars last year in agricultural development, there would not be a single hungry person on the face of the earth; instead of the fact, that two-thirds of the world is living on starvation diets tonight, not enough food.

그것은 천연 자원들이 고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지구가 넘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줄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작년엔 전세계적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모든 나라에서 국방비로 소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킬 무기를 사느라고 1조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한 돈을 만일 농업발전에 투자했다면 이 세상에 아마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3분의 2가 오늘 이 시각에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It isn't that we can't produce enough food, it isn't that there isn't enough arable ground and so forth, it's a misdirection; the greed of man. It's more profitable to make bombs than to plant corn. And so the greed of man, the love of money; that's the root of the evil. If it weren't for the love of money, we would have no drug problems today. What's behind the drug problem? What's behind all of these drug smuggling and so forth? What's behind it all? The love of money. If

we did not have the love of money, there would be no prostitution today. Were it not for the love of money, think of how many evils would be eliminated from our earth.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우리가 양식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경작할 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간들의 그릇된 정책과 인가의 탐욕 때문입니다. 폭탄을 만드는 것이 옥수수를 심는 것 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 그것이 악의 뿌리입니다. 만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마약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마약 문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밀반입해서 들어오는 이 마약의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모든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없다면 오늘날 창녀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제거할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which while some have coveted after, they have er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through with many sorrows (6:10).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10).

An interesting observation because the lie that we believe is just the opposite. The common deception is if I just had enough money, I would be happy. Paul is saying that these who have achieved, turning from the truth, erring from the truth, have brought themselves into great sorrows. And interestingly enough, the most wealthy men I know are also at the same time the most miserable men that I know. Interesting, isn't it?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거짓말들이 사실과 전혀 반대라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돈만 충분히 있으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속는 기만입니다. 바울은, 크게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끌어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많이 재산을 가진 부자들 입니다. 이것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I have them invite me out to lunch. They pour out their stories of woe, misery, loneliness. One fellow was sharing with me how he didn't know if anybody truly loved him or not. All of these women throwing themselves at him, but he said I don't know if they really love me or not. He's married three of them so far and they've all taken him for a pretty good ride. And now he's in a real dilemma. Since the last one left and made out pretty well in the courts, there's a lot of others who are thinking, My, I'd like to retire, too. Live with a guy for six months and retire, you know. He said, I don't know if they really love me or not. Miserable. Doesn't know true love. How can I know if they really love me? Sad, isn't it? The guy's so wealthy. He doesn't know if anybody really loves him or not or they're just after him for his bucks. Are they friendly just because he has bucks? Are they hoping to cash in on his bankroll? Poor fellow.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점심에 초대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자신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쏟아 놓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날, 자신의 친구들이 과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 했습니다. 과거 자기 품에 안기던 많은 여자들이 정말 사랑 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가졌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중 세 여자와 그는 결혼했지만 결과는 그 세 사람이 다 이 친구에게서 많은 돈을 뜯어 갔습니다. 그는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자는 법정 소송을 통해 재산을 많이 뺏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여자들도 이 여자의 법정 소송에서 성공한 예를 듣고 자기들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자는 얘기하길 "와, 나도 은퇴하고 싶어. 나도 저 남자와 약 6개월 정도 살고, 후에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볼만한 일인걸" 하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모르다니.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슬픈 이야기 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그를 사랑하는지 알는지 모르고 여자들은 돈을 보고 그를 좇아 다닙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돈 때문에 그에게 친절한 걸까요? 그의 은행에 있는 돈을 빼내고 싶은 것일까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I have a cousin who's so rich as far as money goes. The poor fellow is over in the Philippines somewhere with a butterfly net chasing butterflies through the jungles. That's how he spends his life, chasing butterflies through the jungles. Worth millions of dollars, he's never worked a day in his life, but life is a bore, life is a drag. The only excitement he has is chasing butterflies. Poor fellow. Next to him I'm rich.

내 사촌 중 하나는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내는 필리핀 어디에선가 정글을 누비며 나비를 채집하러 다닙니다. 그의 온 인생을 정글에서 나비 잡으러 다니느라 다 써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들, 하지만 그는 자기 일생 중에 단 하루도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 지루해서 질질 끌려 다닐 뿐이죠. 그의 인생의 유일한 흥미거리가 바로 나비채집 입니다. 불쌍한 친구죠. 그 사람 다음으로 부자가 있다면 바로 나일 것입니다. 11절,

But th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6: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6:11);

Flee what? The love of money.

무엇을 피하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follow after righteousness (6:11),

의를 좇으며 (6:11),

Pursue after righteousness. Don't pursue after wealth, after being rich; pursue rather after righteousness.

바울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부를 좇지 말고 의를 좇으라고 합니다. 공의를 좇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godliness (6:11),

경건과 (6:11),

There is that word again.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지요.

faith, love, patience, meekness.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and lay hold to eternal life, whereunto thou art also called, and hast professed a good profession before many witnesses (6:11-12).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였도다 (6:11-12).

So it all comes down to what is the center of your life. If money, the desire for money, the desire for gain is at the center of your life, then you're going to be a miserable person. If God is at the center of your life, you're going to be rich, your life is going to be blessed, your life is going to be full. So put God at the center of your life, put righteousness at the center of your life, godliness at the center of your life, that you might really be a rich person. Enjoy the true riches, the eternal riches.

그래서 그것 전부다 당신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돈, 즉 돈에 대한 욕망이면, 유익을 얻고자하는 욕망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있고 당신은 비참한 사람이 될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은 부요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부디, 그의 공의를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또 경건을 인생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요한 사람들이 될것입니다. 진정한 부요함, 즉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Because one of the tragic things about my poor cousin is the only one he has to leave his money to is an idiot niece, his daughter. It's tragic, isn't it? But she's already got so many millions, you know, but she lives in a care home in Ojai. She's not able to take care of herself. Her grandmother died recently and left her another seven million dollars but it's all under trusteeship while she just sits there in the home and puts peanut butter on Ritz crackers. That's tragic, isn't it?

내 어리석은 사촌에 관해 정말 비극 중의 하나는 그에게 무남 독녀가 있는데 그 바보같은 딸에게 그의 재산을 물려주는것입니다. 비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딸은 벌써 수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오자이 (Ojai) 에 있는 보호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 딸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수 없습니다.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백만 달러를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그 돈은 신탁통치에 맡겨졌고 그 아이는

보호소에 살면서 크래커에 땅콩 버터만 발라 먹고 살아갑니다. 정말 비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I went to visit her and she said, Oh, I have this special recipe, I want to, I want to fix for you this special recipe. She brings out all these Ritz crackers with peanut butter. Oh, she made these up herself, you know. Poor child, my heart goes out to her. I really, my heart does go out to her. I wouldn't trade places with her for anything, with all of the bucks that she has, or my other cousin. I wouldn't trade with him for anything with all of the bucks he has. I wouldn't want to be running around some jungle in the Philippines tonight, you know, chasing butterflies.

내가 그 애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나한테 기가 막힌 요리법이 있어요. 내가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낸, 땅콩 버터를 바른 크래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애가 손수 만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위치와 안 바꿀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진 그 아이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 사촌도 마찬가지요. 그가 가졌던 그 많은 돈을 다 준다고해도 내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필리핀 장글을 쫓아 다니며 나비를 잡지 않겠습니다.

God at the center of your life; it's a life that is content, a life that is happy, a life that is rich, a life that is full.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부요함으로 만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I give you charge [he said] in the sight of God, who makes all things alive, and before Christ Jesus, who before Pontius Pilate witnessed a good confession (6: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6:13);

“Pilate said, Art thou a king then? And Jesus said,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I came to the world” (John 18:33,37). Good confession before Pontius Pilate. So this is going to be heavy, heavy duty charge. “I charge you before God, who makes all things alive, before Jesus Christ,”

요한 복음 18장에, “빌라도가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요 18:33, 37) 라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한 대답 이였지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물을 살게하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That you keep this commandment without spot, unrebukeable, until the appea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6: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6:14):

Now he gave them this commandment; what was it? To make God the center of your life, to seek after righteousness and godliness. I charge you before God, do this until the Lord comes again. Keep Him at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life. What did Jesus say about this? He sai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taken care of" (Matthew 6:33).

바울이 이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였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의와 경건을 구하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요?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고 하셨습니다.

You see, man's life exists on two plains, 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The vertical plain is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at is the axis upon which your life revolves. If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out of kilter, the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ellowman is going to be out of kilter, out of balance. And this is the problem in our world today. People are trying to live a well-balanced life and they are struggling and striving to have a well-balanced life, to have a well-balance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y're fighting constantly to find this balance in relationships, spending millions going to the psychologist and psychiatrist trying to find the balance. The reason why the life is out of balance, the reason why your relationships are out of balance, is that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out of balance. The vertical axis of your life is off center.

인간의 삶은 두 평면에 존재하는데, 하나는 수직이요 다른 하나는 수평입니다. 수직평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축으로 하여 인생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균형을 잃으면 곧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도 문제가 생겨 모든 관계의 균형에 이상이 생기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균형이 잘 맞는 삶을 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균형을 이룬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관계의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 없이 싸우거나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돈을 수백만불씩 소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을 잃는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직 축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Now Paul is giving to Timothy fantastic advice. Put God at the center of your life. Godliness, righteousness, put these things at the center of your being. I charge you before God, do this until Jesus comes. Because if the center of your life is right, if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then you will be a very rich person, because it will affect every other relationship in your life. They will all be right if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You'll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the devil; you'll defeat him everytime you meet him because your relationship with God is right. You'll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r possessions, for you will know that they are really God's, and only entrusted to you and you'll use

them wisely. You'll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your fellowmen, sharing, loving, giving.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훌륭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네 인생의 중심에 모시되, 경건과 의로움을 네 자신의 중심에 두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꼭 지켜라” 하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바르면, 즉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여러분은 아주 부요하게 될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관계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고 있음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만날때 마다 그를 패배시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들과도 나눠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좋은 관계를 유지 하십시오.

God at the center, the vertical axis, the horizontal automatically falls into place. You cannot correct the horizontal axis by working on the horizontal. I mean, you can't correct the horizontal plain by working on the horizontal plain. I'm going to work on this relationship. While you're working on this relationship, you're messing up five more. Spending too much time trying to get this relationship right and everything else is going wrong. So you finally get this one right and you turn around and oh man, everybody else, oh help. So you grab a hold of another. I'm going to work on this relationship. While you're getting that one corrected, another goes out of balance.

수직 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수평은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수평에서 일하면서 수평의 축을 바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평면을 조절하여 수평면을 바르게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잘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동안 다섯개를 더 망가 뜨릴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고 나면 다른 모든것들이 잘못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드어 하나를 바르게 하고 나서 돌아보면 다른것들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있습니다. 오 맙소사. 그래서 당신은 다른 걸 분드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고칠게. 당신이 하나를 고치는 동안에 다른것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And so you spend your whole life trying to get balanced here, you know, when in reality you need to come back to the vertical axis, get your relationship with God.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other things would be taken care of.” They'll all be added to you. So that is why Paul is so forceful in charging Timothy to get your life right with God. Put God at the center. Seek after righteousness and godliness. For when Jesus comes,

우리는 그 규형을 잡으려고 우리의 전생애를 바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 축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해결되리라.” 모든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과 바르게 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십시오. 의와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이 오실때,

(15절 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In his time he shall show, who is the blessed and only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ho only hath immortality, dwelling in the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unto; whom no man hath seen, nor can see: to whom be honour and power everlasting. Amen (6:15-16).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어다. 아멘 (6:15-16).

So Jesus when He comes is going to show who the true, the only God is. “The only and blessed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who only hath immortality, who dwells in a light which no man can approach; whom no man hath seen.” In John, the first chapter, we read,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but the only begotten Son,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manifested him” (John 1:18). But Jesus will show us then who is the only true God.

예수께서 오시면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요한복음 일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요 1:18) 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시면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Now you see, riches are not a true God. They are a false God, but they are the god of many people. Many people are worshipping wealth; it’s the center of their life. And you don’t have to be wealthy to have it at the center of your life. In fact, it probably is a problem that is almost more endemic to poor people than it is to wealthy people, because poor people so often live under the illusion that wealth would be the solution to all their problems. Wealthy people know that that’s not so, but poor people think that it would be so. All my problems would be solved by wealth. So the love of money can actually be a stronger drive in a poor person than in a rich person. It is not a true God. It is a false god. When Jesus appears, He will show us who is the true God. “The only Potentat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아시다시피, 재물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하나님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예배하며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 재물은 부자들에게 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항상

경험인지 모릅니다. 숲을 따라 거닐며, 솔잎 냄새를 맡고 들려오는 폭포수와 흐르는 시냇물소리, 어치들과 수다쟁이 다람쥐들의 장난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즐기도록 풍성히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삶을 즐겁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가지도록 율법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Our problem is that we don't always agree with God. We think that many times God has set rules that are too restrictive, that they are holding me back from joy or from something that would be pleasurable or exciting. And I find myself rebelling against the law of God saying, God, you're not right, you know, it isn't fair to deny me that because if I could only do that, then I would really have joy and happiness. But everytime we defy the law of God, we find it brings misery and sorrow to ourself.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즐길수 있고 감격스러운 것들을 뒤에 숨겨놓고 즐기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칙에 반항하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맞지 않아요. 내가 그걸 못하게 하시니 불공평해요. 그 이유는 제가 그걸 할수 있다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것 같거든요. 하지만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 우리 스스로 고통과 슬픔에 빠집니다.

God has given us the rules of happiness and the rules of joy. “Happy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does he meditate day and night. Where he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rivers of water, bringing forth fruit in his season; his leaf also shall not wither; whatever he does will prosper. The ungodly are not so: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refore the ungodly shall not stand in the day of judgment” (Psalm 1:1-5). Oh the happy man is the man who has put God at the center of his life because when God is at the center of my life, I can then enjoy all that God has given to me. I can enjoy it fully. For God has “given to me all things richly, freely, richly to enjoy.”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법과 행복의 법을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1:1-5).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껏 즐길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것을 즐기도록 풍성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And so, “Charge those that are rich,” 부한 자들에게 명하기를,

That they do good, and that they be rich in good works,
ready to distribute, and willing to give to those that are in need
(6:18);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 했는데 (6:18);

The word “communicate” is that of communicating of help unto the needy.
For in so doing, they will be

“나눠주다” 는 말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그들은

Laying up in store for themselves a good foundation against
the time to come, that they may lay hold on eternal life (6: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 될 것입니다. (6:19)

Jesus gave a parable that has been a problem for many people to understand. The parable was of a servant who found out he was going to get fired. His master said, Okay, make an accounting of everything, you know, you're fired. Servant says, Hey, what am I going to do? I'm ashamed to beg. I don't want to dig ditches. I know what I'll do. And he started calling in the creditors. How much do you owe my boss? I owe him a hundred measures of meal. Here, let me have your bill. Scratch out a hundred. Fifty. Called in another creditor, how much do you owe my boss? Oh, a hundred barrels of oil. Here, fifty. And he cut all of the bills in half figuring as soon as he's fired, he'll go and say, Hey, remember how I wiped out fifty barrels of oil off your bill? I need a little bit. Could you help me? He was taking advantage of his present situation to set himself up for the future. He knew he wasn't going to always be in this position of helping himself for the future; it's going to be short-lived. He was going to be fired in a week, so, you know, take advantage of my present position to hedge for the future.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비유는 자기가 곧 해고될 것을 알게 된 한 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모든것을 다 회계하라. 너는 당장 해고다” 라고 했습니다.
종이 스스로 말하길,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빌어 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팔아 노동하며 살고 싶지는 않으니,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제 그는
채무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인한테 당신이 얼마를 빚을
졌던가요?” “ 아, 난 곡식100말을 빚졌는데.” “ 그래요? 자, 여기 청구서가 있소,
여기 100말을 지우고 50말로 고치시요.” 그리고 또 다른 채무자를 불러들여서
말하길, “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 아, 나는 기름 백 말을 빚졌소”
“ 아, 그래요? 당신도 여기다 50이라고 적으시요” 그렇게해서 그는 모든 청구서의

금액을 반값으로 해 주었고 곧 그는 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채무자들을 찾아가 말하길 “ 당신 내가 당신이 빚진 것을 반값으로 해 준 것 기억하죠? 자, 내게 얼마를 주시요. 그럴 수 있죠?” 그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장래에 도움이 될 이러한 위치에 항상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일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이내에 해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한 대책을 위해 현재의 위치를 이용합니다.

Now Jesus said, The Lord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And that's where the parable runs into difficulty. Commended him? He ought to have condemned him. He should have thrown him in jail. He commended the unjust steward for Jesus said, The children of this generation are wiser than the children of light. Therefore,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that when you die, you might be received into the everlasting habitations (Luke 16:1-9).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점이 이 예화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칭찬하셨다고요? 그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집어 넣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주인은 자기의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눅 16:1-9)

What was He talking about? Right now, I have the opportunities of laying up for myself treasures in heaven. I will not always have this opportunity. The day is coming when I will die. After I die, I will have no further opportunity of laying up for myself an eternal heavenly store. That opportunity is only now while I am here.

지금 그가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 천국에 보화를 쌓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내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날이 닥아오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영원한 하늘창고에 쌓을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직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일 뿐입니다.

Jesus said, “Make use of the unrighteousness of mammon.” You see, your money, your dollar is not worth anything in heaven. It's not worth very much here, but it's worth nothing in heaven. If you could take them there, if you could carry them out, if when you die you could take a suitcase full, when you get to the gates say, Hey, Peter, look what I brought, you know. Show me the nicest room you've got. Peter will say, What's that junk? Your money is not current in heaven. Here I brought all this gold. No, throw it in the street. Let it mix with the rest of the pavement. We use that stuff for asphalt up here.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이나 달러는 하늘나라에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별로 가치가 없는데, 더구나 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걸 가져갈수 있다면, 그걸 죽을 때 커다란 가방에 가득 채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천국 문에 들어서서 이렇게 말하겠죠. “ 베드로 선생님, 제가 뭘 가져 왔는지 좀 보세요. 제게 가장 좋은 방을 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 그건 무슨 쓰레긴가? 자네 돈은 천국에선 쓸수 없어.”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이 금도 몽땅 가져왔는걸요.” “ 그것도 저 길에다 갖다 버리게. 섞어서 도로 포장에 쓰게. 여기서는 그것을 아스팔트로 사용한다네.”

So, my only opportunity of laying up an eternal heavenly store is now. So “charge those that are rich that they do good, that they be rich in good works, that they are ready to distribute to the needy, and to help those that are in need.” That they might lay up for themselves a store in heaven, a good foundation against the time to come that they might enter into that eternal kingdom. “Laying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corrupt or decay, thieves cannot break through and steal” (Matthew 6:20).

영원한 천국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아 놓을 기회는 오직 지금 뿐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라.” 이것이야 말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 좋은 기반을 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 질도 못하느니라“ (마 6:20).

So rich on earth, poor in heaven. How long you going to be on earth? Hundred years? How long you going to be in heaven? Poor on earth, rich in heaven. Who's better off? So I don't have much. So it is tough. I have all I need. I'm happy. I'm satisfied. I don't have any real needs or real wants. I'm rich. But more than that, hey, the eternal riches. Rich eternally.

세상의 부자는 천국에서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계실 생각이십니까? 100년이요? 그럼 천국엔 얼마 동안 계실겁니까? 세상의 가난한자는 천국의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더 낫습니까?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 가졌으니까요. 나는 행복하며 아주 만족합니다. 더 필요할 것이나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자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영원한 부자, 영원토록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Issues that I debated years ago when I was debating between a career as a medical doctor or as a minister. Where do I want my riches? Now or forever? It makes good sense to me to be rich eternally more than to be rich temporally. It makes better sense for me to lay up my riches in heaven where I might enjoy them world without end, than to try and amass riches now, which can only bring misery and strife and unrest. The true riches.

오래 전에, 내가 의사가 되야 할지 아니면 목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의 보화를 두겠습니까? 지금을 위한것입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한것입니까? 나는 일시적인 부자가 되느니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는 세상에서 즐길수 있는 천국에 나의 보화를 쌓는것이 궁핍과 분쟁 그리고 걱정을 가져다 주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요한 것입니다.

O Timothy, keep that which is committed to your trust, avoiding the profane and vain babblings, and the oppositions of science falsely so called (6:20):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6:20):

You want to know what is the greatest science falsely so called in the world today? Evolution. They call it science but it's falsely called science. There's nothing scientific about the evolutionary theory. It's science falsely so called. Vain babblings, profane and vain babblings. Paul said avoid them, Timothy.

여러분은 오늘날 이 세계에 살면서,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가장 커다란 거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속여서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속여서 과학이라 부를 뿐입니다. 공허한 말들이며, 망령된 말일 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은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Which some professing have erred concerning the faith. Grace be with thee. Amen (6:21).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6:21).

Paul's first letter to Timothy.

여기까지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for the good counsel. May we take heed, and Lord, may we indeed seek to put Christ at the center of our lives, godliness at the center of our being. Keep us, Lord, from the delusion and the lie of the enemy that would say that godliness is a way to riches. But God, may we not have riches as the motive and the center, the master passion of our lives knowing that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evil, has destroyed so many people. Oh God, give us wisdom to put You first. In Jesus' name, Amen.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보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주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되, 모든 미혹된 것들과 세상의 부를 좇으라고 말하는 악한 것들의 거짓말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과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지혜를 가르치사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the Lord give you a blessed week and may you go out and begin to enjoy all things richly that He has given to you. Begin to enjoy those eternal

riches that you have as a child of God. May God help you to just sort of slow down from this mad drive for more and just begin to enjoy what you have. May He give you some blue skies to observe, clouds. Get on down to the beach. Sit there and just watch it and commune with God. Enjoy what God has given to you. And may your life be enriched and blessed as you walk in fellowship with Him, God at the center. In Jesus' name.

이 주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즐겁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영원한 부요을 즐기기 원하며, 우리를 흥분 시키는 것들을 거두어 주시사 우리가 가진 것들로 기뻐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푸른 하늘과 구름, 그리고 바닷가도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가운데 앉아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부요하게 되고 더 큰 축복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